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약속...군공항 이전도 해결 기대

■ 윤 대통령 광주 민생토론회 분위기

검사시절 광주 근무 경험 언급...현안에 깊은 공감 표시
토론 도중 관련 부처에 적극 지원 지시...수차례 박수
정부 부처 적극 실천의지가 중요해 추진 과정 지켜보아야

5일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지지 부진했던 지역 현안사업과 미래 먹거리 사업들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향후 실현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과거 검사 시절 광주 근무 경험을 언급하고,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지역민들은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이날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부 현안사업에 대한 약속은 정부 부처들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 선물 보따리...분위기 '업' 이날 윤 대통령의 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시의 역사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약속의 연속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광주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는 긍정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견학한 사업에 대해서도 토론회 도중 관련 부처에 곧바로 사업 검토를 지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과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 광주 민생토론회는) 다른 여러 시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흥미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게,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재해 주셨다"고 총평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의 예타 면제 등 '적극 검토' 약속에 대해서도 "사실상 확정 가까운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AI 2단계·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속도 기대=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정부 부처들도 AI 2단계·미래차 등 광주 미래 산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AI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2027년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근에 학생 150명 규모 부설 AI 과학영재고를 개교하고 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 광주를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전조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광주에 총 727만㎡ 규모의 자율주행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70여개 소부장 기업이 관여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는 부품 인증·평가 특화 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약 185만㎡), 부품 개발·생산 특화 단지인 진곡일반산단(약 192만㎡), 자율차 실증 특화 단지인 미래차국가산단(약 331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단지 내에는 올해부터 도입될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오는 2028년까지 320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자동차 도시' 광주가 미래차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도중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에 그린벨트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자, 관련 부처에 올해 내로 모든 문제를 완결시킬 것을 직접 지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꼭 막힌 공항 이전 국방부 직접 나서나=이날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꼭 막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방부가 전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주 송정비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003~2005년 광주지검 검사 시절 가을철이면 안개 때문에 광주공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속버스를 탔던 경험이 있다"면서 광주 군공항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군에 송정비행장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얘기했었는데 전남과 얘기가 잘 안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전남에 예산사업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서해 방공 전력 확보를 위해 없앨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잘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방부가 중심이 돼 중앙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사업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한-아세안센터 특별전: 아세안 파빌리온'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7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열린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재단)

광주 국회의원들 한자리에...군 공항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오늘 광주시청서 간담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다만 김영록 전남지사나 전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짜리' 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30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 국회의원 간담회'를 연다.

당초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광주·전남도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양부남(서구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정진욱(동남갑)·안도걸(동남을)·조인철(서구갑)·정준호(북구갑)·전진숙(북구을)·박군택(광산갑)·민형배(광산을)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황이 있는 지역의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입장과 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 회담, 광주·전남-무안 3자 회동, 관련 전라회의, 현안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현재는 답보 상태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직후 전남도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김영록 전남지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남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견해 차이가 분명한 만큼 이점을 조율하고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시·전남도 의견을 듣고 양측이 수긍할 만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추경호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의원 윤리실천법 도입하자"

국회 교섭단체 여당 대표연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

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쟁기고 미래를 준비하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험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공동 (예술의 거리) 근린상가 경매물건

2024년 9월 4일 입찰진행
[3차] 최저가 1,357,333,000원
(유치권 신고는 있으나 유치권 성립여지 없음)

부동산임의경매 : 2024타경 60825
부동산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24-2외 6필지

법원감정가 : 2,423,808,600원
토지가격 : 2,044,445,000원 (구 174.2평)
건물가 : 379,363,600원 (구 101.5평)

광주동부경찰서 인근으로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됨.
식당, 갤러리, 카페 적합

상담문의 · 010-6648-0725